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81. 일곱 대접의 계시, 첫째, 둘째

2014. 07. 2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15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6장을 살피겠습니다. 16장은 일곱 대접을 쏟는 장면인데, 일곱 재앙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6:1,2]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내용을 다 살핀 것 같습니다. 혹시 15장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답: 글썬요? 별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사에 대하여 한 말씀 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예, 하시지요.)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계15:2)입니다. 짐승과 우상은 13장에 나타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3장 이전에는 짐승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상당히 제한적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역사주의적 해석자들이 이 장면을 1260년 기간이나, 남은 때가 없다고 한 종말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한정지어 해석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계20:4~6에도 천년동안 살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도 그 표현이 이 구절과 같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계20:4~6]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 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이 구절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라고 했습니다. 15:2과 다른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더 있는 것인데, 이것도 계12:17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12:17도 1260년과 관련되어서 계시한 사건인데, 그러므로 이 표현도 그 시대를 특정 짓는 표현이라고 하면 천년기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15:2에 찬양하는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 시대 사람에게 한정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속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요. 이런 맥락에서 144000인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계시록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수에 대한 것이 인류의 역사가 있는 후로 언제나 암묵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실까지 다 포함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66이 고대 바벨론 우상숭배 제사장들의 부적에 적힌 수의 합이라는 것을 잠깐 말한 일이 있는데, 인간은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상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거든 이방나라들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구주 메시아의 구속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장악하는 시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묵적 시대나 표면에 드러난 시대나 오직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만 믿은 모든 사람들을 계시록의 기록상의 특성과 맞추어서 이렇게 한데 묶어서 표현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정말 설명을 들으니 그 문장에 대한 이해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살펴본 대로 분명히 예언된 대로 역사적 진행이 있었고 또 예언된 그 시점에서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과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이며, 그 짐승의 이름은 숫자로 계산하니 666이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무시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런 통합적 이해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 고맙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20:4은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분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것은 창조와 구원을 요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망이 되어 돌아가신 일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놀랐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을 때 루시퍼는 완전히 백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하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내셨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와서 경배합니다. 거룩함이란 존재성에 대한 것임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피조물과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을 하는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창조와 구원, 곧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 우리들임을 그들의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고 고백적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긴 이야기를 더했군요.

3.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16장 내용을 살피도록 합시다. 먼저 1,2절의 내용을 말씀하셔야 하겠지요?

답: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일곱 천사도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하는 소리도 성전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계시록의 계시가 성전 구조와 봉사와 관련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음성은 아마도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신 예수께서 하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성소는 속죄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제 그 봉사가 끝났습니다. 성전 안에는 연기로 가득차서 이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행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든 봉사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봉사의 결과를 집행하는 명령입니다. 첫째 천사는 명령을 받고 첫째 대접에 담긴 진노를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재앙을 받은 첫째 대상이 땅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결과는 땅 자체보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재앙을 받는 대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독한 헌데가 나는 것입니다. 헌데 재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6번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짐승에게 독종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맨 먼저 창조한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지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을 기초로 하여 땅 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 또 홍수로 땅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땅을 관할하셔서 사람에게 허락한 수명과 이 땅에 허락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땅을 돌보는 손길을 거두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한 번에 온 지구에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서를 따라 대접을 쏟는 모습으로 알려 주셨으니깐요. 오늘날도 땅은 사람들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그런 요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

는 자들을 벌할 때가 되었다고 11:18절에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요. 그들은 땅이 베푸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4. 그렇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들도 땅에서 사는데, 땅이 베푸는 은혜를 거두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가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창4:10~12]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죄인들에게 땅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흠으로 지었습니다. 그들의 근본된 토지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가인이 그랬지요. 첫째 대접은 땅에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들은 땅에서 가인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지상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 거두십니다. 이사야 33:16에 보장이 있습니다.

[사33: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마태10:

[마10: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당할 때에 전혀 피할 곳이 없게 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일곱 재앙이 내릴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성도들은 재앙을 피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땅에 재앙이 쏟아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당장 죽는 것이 아니고 다섯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 지금 세상에서 종기는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고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쉽게 나는 병인데, 혹시 그때도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을까요?

답: 글썬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음식물을 올바르게 먹도록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먹지 않고 자기 기호를 따라 먹을 때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는 훨씬 높지요. 그러나 이때 재앙이 반드시 음식물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식문제를 굳이 결부시켜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6. 예,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까?

답: 계시록이 워낙 상징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으로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장은 역사적 진행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은 14장 14~20에서 보여주셨고, 그 상징의 실제적인 사건이 1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지구에 실제로 있을 사건입니다.

7. 참으로 두려운 광경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종기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답: 참 꼭 알아야 할 질문을 하셨네요. 치료되지 않습니다.(왜 그렇습니까?) 치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은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회복의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에 행하시던 속죄봉사가 끝났고 곡식은 마르도록 익었고, 포도는 절정으로 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는 은혜가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없는 명의라도 명약이라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참 끔직한 일인데요, 그것이 창조주를 거절했기 때문에 창조주가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8. 알겠습니다. 이제는 둘째 대접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답: 그렇게 합시다. 성경을 읽은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계16:3]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 모두 천연계에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해, 빛, 유프라테스 강, 공기(공중), 이것이 모두 천연계입니다. 사람에게 쏟는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요. 오늘날 천연계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래도록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천연계를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떠나고 그 얼굴을 가리시자, 천연계가 질서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지키는 것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즉 사람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대신에 죄로 인한 이기심 때문에 마구 파헤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은혜 기간이 있는 동안 창조주의 붙드는 손길 때문에 유지되었는데, 이제 그 손길이 떠나니 천연계가 질서를 잃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했는데 파괴한 사람들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반항한 것

과 같은 상태라고나 할까요. 첫째로 땅이 문제를 일으켰고, 다음으로는 바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흘린 피도 사람들 눈에 끔찍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피는 좀 더 끔찍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넓은 바다가 피같이 되니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인 강물이 피가 되는 것으로 예증을 보이신 것입니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재앙도 부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땅에 쏟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바다가 피같이 된다고 설명해도 반드시 반대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으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까요.

9.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의 정부나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겠지요. 아마도 첫 재앙이 내렸을 때에는 의료진이 부산을 떨겠지요.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고 종기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면 얼마나 놀랍고 답답할까요. 그 원인을 찾아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바다에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죽으니까 또 약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해양학자들이 부산하겠지요. 그리고 기상학자들이 바쁠 것입니다. 정부와 하계와 의료계와 아마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문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원인을 학문적으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쯤 되었을 때 아마도 종교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신의 징벌일 것이라는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그러면 어떤 신의 진노일 것인지를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그때에 세상을 주도하는 종교 세력이 그 일을 해결하는 중심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세 마리 짐승으로 상징된 그 세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창조주를 경배하고 부활의 주를 경배하라고 외친 그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생명의 주를 배척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한 동안 외쳤거든요. 그때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으니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재앙의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섯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이때는 양편 다 엄청난 환난의 기간입니다.

10. 설명을 들으니깐 무섭네요. 그런데 양편 다 환난의 기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 신앙에 대한 핍박과 환난을 핍박하는 세력과 핍박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세력은 핍박받는 무리들에게 환난을 주기는 하지만 그들은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지요. 이제 그들은 그 환난의 원인을 종교 문제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주장과 교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울 것입니다. 마치 네로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불난 죄를 뒤집어씌운 것과 같지요. 그래서 재앙을 그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 경고하는 그들에게 원인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은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

다. 이런 상태를 야곱의 환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환난은 양편이 다 환난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11. 야곱의 환난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생소한 말인 것 같은데 무엇이지요?

답: 야곱의 환난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납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렘30:5~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 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찜이뇨 7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넠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은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일곱 재앙이 내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이것은 옛날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사건에서 취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진퇴유곡의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핍박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과거가 두려운 것입니다. 압복 강가에서 야곱의 두려움은 자기의 과거였거든요. 사실 자기를 향하여 오는 에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가 달려드는 것이지요. 것처럼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과거를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알아야할 이야기인데 오늘은 다 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군요.

12.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일곱 재앙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